朝鮮日報 夕刊 十二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道德의頹廢 新倫理觀의確立切要

一

今日의 朝鮮처럼 道德의 頹廢한 때도 적을것 같다。父子、夫婦、兄弟、朋友、師弟間에 잇서야할 愛情、友愛、信義는 極히 稀薄해진 感이 不無하다。財産을 貪내어 親父를 죽이는者、情死를 約束하고 自己만은 살아날 窮理를 한 男子、遺言의 有無를 理由로 兄弟間 財産上의 多寡를 爭訟하는者、半生의 知己를 돈 때문에 欺瞞한者、自己가 가라치든 女生徒를 誘引하야 高飛遠走한者、實로 非一非再다。이러한 不道德한 非行이 無智한 愚夫愚婦間에 이러난 일이라면 다시 말할 價値도 업지만은 社會의 指導的 責務를 가진 知識階級間에서 朋友와 師弟의 倫理가 一層 紊亂한것을 볼때 實로 寒心을 느끼지 안흘수 업다。

二

諸은 父母를 遺棄하며、醜한 己妻를 離婚하며、法律上 相續權이 업는 幼弟에게 親父의 遺産을 分配치 안흐며、地位를 다투기 위하야 同僚를 中傷하며 個人的으로 실흔 恩師를 作黨排斥함이 自己本位로만 생각하면 업슬수 잇는 일도 아니다。個人主義를 利己主義로 誤解하고、階級意識을 父子、夫婦、兄弟、朋友、師弟間에 생각한다면 그러할수도 잇다。그러나 個人主義라하는것도 個性의 完全한 發展을 위하야 他人의 個性과 人格을 無視하란것이 아니며 階級意識을 鼓吹하는 社會思想도 道德의 基本되는 父母、兄弟、同僚間의 愛情、友愛、信義를 無視하는것이 아니다。萬一 一部에서 誤信하는것과 가티 社會에 基礎的 道德이라 할만한 愛情、友愛、信義를 빼고보면 政治나 經濟나 其他 온갓것이 무슨 權威를 가지며 秩序를 가질것인가。社會主義의 蘇聯이나 個人主義의 英國이나 政治思想은 如何間에 道德의 基本되는 肉親間의 愛情、同僚間의 信義를 尊重하고 神聖視하기 때문에 今日의 權威와 秩序를 維持함이 아니랴。

三

道德을 高調함이 勿論 舊時代의 三綱五倫을 그대로 默守하란 말은 아니다。奉祭祀、接賓客때문에 四十까지 밧글 나가지 못하고 三從之道라하야 女性을 奴隷化하고、君師父一體라 하야 弟子에게 服從의 義務만을 强要하는 陣腐한 舊道德을 高調하는것은 그야말로 時代錯誤도 程度를 지낫다 하겟다。그러나 어느 社會나 秩序를 維持하고 權威를 지켜가라면 道德의 基本이 되는 以上의 愛情、友愛、信義는 업슬수 업스니 이 道德觀念의 强한곳에 發展과 繁榮이 잇고、이 觀念의 薄弱한곳에 腐敗와 沈淪이 잇다。앵글로·싹손民族과 슬라브族이 興盛하고 라틴族이 이에따르지 못하고 世界에 誹欺와 詭詐로써 有名한 猶太族이 衰亡해 가는것은 這間의 消息을 말함이라할수잇다。

四

封建制度가 崩壞되고 資本主義制度가 樹立되기 前에 社會 主義의 發展이 밀려들기 始作하야 從來의 封建道德은 一城을 失陷하고 새로 樹立될 自由主義 或은 新思想의 道德은 그대로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야 一時的 過渡期의 混亂을 演出하기 쉬운것은 어느 社會史를 보아서도 明瞭할 일이다。구타여 朝鮮의 現狀을 나무랠하고 悲觀하라하는바 아니나 先覺者的 立場에 잇는 靑年 特히 知識階級은 一層 그 責任을 自覺하야 모든 過渡期的 過誤를 短時日에 淸算하고 新倫理、新人生觀에서 健全한 道德을 樹立할것이 아닌가。

蘇蒙援助協定은 中國의主權侵害
中蘇協定違反으로承認不能
國府第二次抗議內容

【南京十一日發同盟】國民政府는 蘇蒙相互援助議定書에 對한 第一次抗議에 對한 蘇政府의 回答을 承認할수업다하야 十一日午後 左와 如히 第二次抗議를 提出하엿다

第二次抗議要旨

蘇蒙相互援助議定書調印問題에 關하야 本部長은 이미 四月七日 貴大使에게 對하야 抗議書를 提出하고 中國政府는 斷然 承認할수업다는것을 聲明하엿다 이에 對하야 今月九日 貴大使는 本部長으로부터 義者 照會한데 對하야 回答을 示하여왓다 右 回答에 依하야 蘇聯政府는 이에 거듭 外蒙古를 完全히 中華民國의 一部이라고看做한다는것이 該領土內에 잇서서 中國의 主權을 尊重한다는旨를力說하엿다 그런데 蘇聯政府는 今次 蘇蒙議定書調印에 關하야 各項에 나린解釋에 對하야는 이것으로 充分한 理由라고는 認定할수업다

因出하는바는 民國十三年奉天에서 締結한 奉蘇協定을 先例로할수업다 大蓋 右協定은 地方當局이 中央의 許可를어더 中蘇協定의附屬文書로 하기以前에 北平政府外交部는 民國十三年九月二十九日及 十月十一日兩回에亘하야 貴國駐華大使에게 抗議를 提出하엿고 또中國의 莫斯科駐剳外交代表를經由하야 蘇聯政府에 抗議하엿든것인 奉蘇協定은 또 貴國이 國際慣例에 違反한 不法行爲로 今回蘇聯政府와 外蒙古와의 間에 締結된 議定書는 中華民國의 主權侵害 民國十三年 中蘇協定의本旨에 抵觸하는故로 中國政府는 該議定書에 對하야 거듭 抗議하지안흘수업다 中國政府는 上述한 第一次抗議에서 表示한 態度를依然 維持한다는것을 貴大使는貴國政府에 이趣旨를 達하기를希望한다

民國二十五年四月十一日
中華民國外交部長 張群
蘇聯大使 디미트리보고모로프 閣下

聲明書도公表!
蘇政府回答不承認力說

【南京十一日發同盟】國民政府外交部는 蘇蒙相互援助 議定書에 對하야 十一日長文의聲明書를公表하야 蘇中兩國間의 交涉經過를 官明하는同時에 蘇聯政府의 回答을 承認할수업다는 所以를 力說하고 다시第二次抗議를 提出하엿다는旨를 言明하엿다

聲明要旨는 左와如하다

政府는 三月十二日에 提示한蘇蒙相互援助議定書에對하야 義者第一次抗議를 提出하고 이에對하야 蘇聯政府의 七日附 回答에잇서 領土及 主權의 各問題에對하야 不徹底한 言辭를 弄하고 民國十三年 奉蘇協定에 對한 締約에 中華民國은 何等 抗議치 안흔 點을 指摘하엿스나 右는 事實과 符合되지 안는다 我外交部는 十一日 莫斯科駐剳大使에게 第二次抗議를 決諒하야 蘇聯政府가 中蘇北京協定을 有效하다고 表示한 一點을 除한 一切의 點에 對하야 거듭 事實과 顚齬되는것을 反駁하야 中國은 第一抗議書에 表示한 態度를 維持한다는것을 明白히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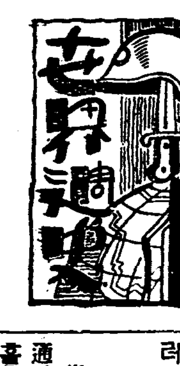
(寫眞은 張外交部長)

北平大中學校에 赤化勢力深刻化
關係者七千餘名到達

【奉天十一日發同盟】確實한側의 調査에依하면 最近 在北平大、中學校五十一校의 赤化狀況을보면 敎職員五千八百九十名 學生七萬一千四百名中 共產黨에 籍을두고 檢束되거나 或은 逃亡한 敎職員은 六百三十八名 學生은 六千四百七十名에 達하는바 此等各學校에는 革命學生自治救亡會를 組織하고 北平委員의 指令下에 暗躍을 繼續하고잇다

라國首相大統領兼任

【리가(라트비아)十一日發電通】라트비아首相길·울만스氏는 十一日午前 臨時大統領에 就任하엿다 右는 獨逸의例를 模倣하야 首相의地位와 大統領의 地位를 一體로한다는旨를 宣言한今年三月에發布한 法令에 依하야 政府는近近憲法을 改訂하야 確呼不動한것으로 만들러이다



綏芬河事件

滿蘇國境一帶에서 이러나는 日蘇兵의 衝突事件은 거이수일사이업시 連鎖的으로 이러나고잇다 九日에는 綏芬東方高地에 또다시 衝突事件이 이러나 日本軍側에 戰死者一名 行方不明者 五名을 내엿다 이事件에 對하야 大田駐蘇大使는 十八日 蘇聯當局에 嚴重抗議를 提出하야 蘇聯側의 責任을 問하엿든바 蘇聯側은 逆襲的으로 도리혀 日本軍이 國境을 侵犯하고 蘇聯側을 襲擊하엿다는 事實을 드러 日本側에 抗議하엿다

蘇蒙協定抗議

蘇聯政府는 七日 타스通信을 通하야 지난 三月十二日 우란바토르에서 蘇聯外蒙間에 成立된 協定書의 全文을發表하엿고 이條約正文이 發表되자 國民政府는 即時 右條約에 對한 不承認聲明書를 發表하는 同時에 右는 中國의主權을 侵害하는 條約違反行爲라하야 蘇聯側에 抗議를提出하엿다 이에蘇聯側은 右蘇蒙協定이 中俄協定에 何等抵觸되지안는다는 同時에 外蒙의 權益에 背馳되지안는다는理由를드러 中國의 抗議를 一蹴하엿다

◇ 對伊制裁에對한 聯盟의 消極的態度로 伊太利는 에디오피아 征服에對한 野望을 마음대로發現하야 到處에서 暴威를 뽐내고잇다 伊北軍은 이미 곤달市를 降落하고 타나湖에 達하엿스며 交軍은 에同首都 아디스아베바 入城準備를 하고잇다고 傳한다 伊太利南軍 그라치니將下의部隊도 二百三百의 增援을 어더 急遽首都를 衝擊하야 아디스아베바第一着을 指目하고進擊할 意見을 보이고잇다한다

에直接交涉受諾

에디오피아政府는 從來 對伊緩和折衝에 關하야 伊太利政府와의 直接交涉을 拒否하여오드니 聯盟의 優柔不斷한 態度로 마침내 對伊直接交涉을 決意하고 九日 쥬네브駐在에디오피아代表部로부터 右趣旨를 言明하엿다 但 直接交涉을 受諾하는 條件으로 右交涉에는 聯盟代表도出席하야 緩和條件이 聯盟規約를 버서나지안토록 監視하여 달나는 主張은 依然 强硬하다

로條約國會議

第三次로카르노 條約國會議는 十日 쥬네브 聯盟新議事堂에서 秘密會議를 開會하엿다 右會議에는 英、佛、白 三國代表가 出席하여섯는데 먼저 入目言당 佛外相으로부터 英外相及 白耳義首相에게 提出한 獨逸回答에 對한 佛國의覺書를 議題로 討議를 進捗하엿스나 佛國側의要求인 獨逸의 라인地帶에 要塞를 構築할境遇 對獨制裁를 實施할것이냐 안할것이냐의 確約은 주지못하엿다

中立國援助爲하야 實力行使도不辭
上院에서의全般的戰爭反對聲明과함께
米中立政策大轉換乎

【華盛頓十一日發同盟】헐國務長官은 戰時에잇서서 中立國의 權利擁護를爲하야 關係國政府와折衝하야 具體的方法 確立에進出할意向을 明示한것은 米國政府가 從來의消極的中立政策을 一擲하고 積極的으로 中立國을援助하야 境遇에依하야는 實力에依한 援助도不辭할 方針을闡明한것이라고 思惟되여 米國中立政策의 一大轉換이 豫想되게되엿는데 헐國務長官의 右聲明과 때를같이하야 十一日上院外交委員會도 去一月 헐國務長官이 委員會席上에서 行한『全般的戰爭』反對의 聲明을 發表하야 各方面에 非常한 反響을 惹起하엿다 米國政府는『國際協力에 依한 强力中立政策』에 進하게되엿다

一、特別國際會議의 招集할 時에잇서서 中立國權利의 擁護에 關한 國際協力案審議를 求할것이냐

一、直接重要各國에 個別的 參議를 遂할것이냐

二個의方法이 考慮되여잇는데 헐國務長官은 確實한方針에對하여는 一切 言明을避하고잇스나 國務省當局으로서는 本問題에對하야 아직 各國政府와 折衝을 遂한 事實이업고 또何等具體案은 決定되지못하엿스나 結局早晩間 何等方式의 具體的折衝을 圖할것은 거의 確實하다고 觀測된다

中立國擁護를
헐國務長官言明

【華盛頓十一日發同盟】米國政府는 伊에紛爭이 惡化되여 歐洲에 戰禍의危機가 到來되자 嚴正中立法案을 制定하고 中立立場을 表明하는同時에 더욱汎米平和會議를 招集하고 南北米洲大陸모로主義强化에 進出하기로되엿는데 헐國務長官은 十一日 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잇서 左와如히 述하엿다 米國政府는 中立國擁護를 强化하는 見地에서 中立에 對한 保護手段을 賦與하는 모든 國際協力에 適進할 意向을 言明하엿다

헐國務長官의 言明要旨는 左와如하다

米國政府는 戰時에잇서서 中立國의 權利擁護를爲하야 關係國政府와 折衝하야 具體的方法을 樹立할 方針이다 米國政府는 白國을 戰爭의 圈外에두는데 專念하고 스사로 消極的態度를 維持함은 戰爭을 回避하기에 가 다만 米國政府는 그로된 印象을 世界에 주게되므로 이러한影響은 斷乎 打破치안흐면안될것이다

다다넬스海峽再武裝
土耳其外相、聯盟에要請
로잔느條約調印國에 通牒을發送
土國外相의署名으로

【쥬네브十一日發電通】土耳其外相은 十日 앙카라駐在 로잔느條約調印國인 日 英 伊 佛 가리아 希臘 루마니아 諸國代表에 對하야 다다넬스海峽再武裝及 撤廢要求에 通牒을 發하고 當地聯盟當局에 對하야도 來五月十一日에 開催할 聯盟理事會에서 다다넬스海峽防備回復問題를 審議하기를 要請하엿다고 傳한다

따라서 라이란트의 非武裝條項廢棄를 要求한것을 저어하엿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제야 旣히 事情의 變化을 招來하야 政府가 外交的手段에依하야 合理的으로 不平等條約의 廢棄를要求하는 以上이것을 容許하는수밧게업다

佛政府는土要求를 好意的支持

【巴里十一日發同盟】佛政府는土耳其政府의 海峽非武裝條項廢棄要請에 對하야는 好意的支持를 與할旨를 言明하얏다 右는 히틀러總統의 一方的行爲에 依한 協約廢棄에對하야 國際原則上의 實物教訓을 與할方針이라고 解釋된다

英政府도土要求贊成

【倫敦十一日發同盟】英國政府는 土耳其의 要求에對하야 十一日午後다음과가튼 見解를表明하얏다 英國政府는 從來로잔느條約의修正에反對하얏스나 그것은萬若土耳其政府에이것으로 强要하면다음은政府가 바다시 이것에

【安府十一日發電通】土耳古政府는 十日聯盟에 通達한 다다넬스海峽武裝에關하야 通牒을 로잔느條約調印國인 九國即日、英、佛、伊、蘇、勃、希、유、유國各政府에 送附한것이 判明되엿다 그리하야 右通牒은 로잔느條約에 依한保障이 不確實한것으로되여 實行性을 喪失한旨를 指摘하고 土耳古政府는 外部로부터서의危險에 暴露하는 如斯한條約은 全혀 意義업는것이라고 强調하고 土耳古政府의 領土不可侵確立에 必要한保證을 回復하기 爲하야 로잔느條約附屬書의 海峽主權에 關한條項에 對하야 새로운協定을目的으로 調印國間에 會議를 開催하야 可及的으로 速히이것을 達成하려고 要請한것이다

十三國委員會休會 來十六日에再開會

【쥬네브十日發電通】十日午前十一時二十分부터 開會된 十三國委員會는

一、十日로써閉會된十三國委員會는休會할것

一、但十四日마다리아가議長이伊에兩側과 各其 非人道的戰爭의 停止 紛爭의 和平的解決에對하야協議를努力할터이므로十三國委員會는 右折衝經過를聽取하기 爲하야 議長으로부터 聽取하기 爲하야 다시來十六日에 再開하기로 決定하고 午後零時三十分 散會하엿다

綏芬河事件으로 蘇聯側에서抗議
大田大使는다시逆襲

【莫斯科十一日發電通】蘇聯外務次官스토모니야코프氏는 綏芬河事件에對하야 十一日 大田駐蘇大使에게 抗議를 提出하엿는데 大田大使는 이事件은 蘇聯側에서 이르킨것으로 現在日本側은 三名의 死者를 내이고잇고 따라 日本은 何等蘇聯側으로부터 抗議를 바들 理由가업고 도리혀 日本이 蘇聯政府에 對하야 抗議치 안흘수업다고 逆襲하엿다

에國新陸相戰死

【아스마라十一日發同盟】前戰에서온 報道에 依하면 마라와附近의 戰鬪에서 에디오피아新陸相라스·게다치오아바다將軍은 가라族叛亂部隊에게 戰死하얏다고 한다

人事·集會

▲柳一韓氏(柳韓洋行主)上海等地를 旅行中十二日歸國

英外相의態度强硬
『스』運河閉鎖決意
伊國의對에交涉策略에憤慨
佛國의協力如何注目

【巴里十一日發電通】伊에交涉問題는 伊太利側이 戰鬪行爲의 前提的要件을 强硬히 拒否하고잇슴으로 紛糾混沌한 情勢에잇는데 右에關하야 英國側의 對策으로 傳하는바에 依하면 쥬네브에잇서 十三國委員會에 出席하야 紛爭處理에 對하야 努力한 이든外相及 할리팍스國璽尙書의 兩相은 英國의 面目을 保持하기 爲하야 集團的 安全保障을 獲得하기 爲함에는 此際 斷乎한 對伊手段을 取할 必要가잇고 그리고 이手段으로가장 効果的인것은 스에즈運河를 閉鎖하는데잇다는 意見에 一致하게되엿다 右手段을 取하는데 對하여서는 英國輿論의 支持를 必要할것은 勿論 佛國의 協力도 絕對로 必要로 하므로 볼드윈首相이 果然 이러한 强硬策에 即時 同意할는지 자못疑問視되엿다 그리고 佛國政府로 假令 英國側에서 如斯한 手段에 對하야 協力을 求하는일이 잇드라도 總選擧를 目前에두고 잇는 此際實否의 態度를 明示하기는 자못困難하다고 觀測된다

伊政府回答內容

【羅馬十一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人道化에關한 十三人委員會의 要請에 對하야 十一日 聯盟事務局을通하야 回答을 發하엿다 伊太利政府의 回答內容은 左와如하다

九日附十三人 委員會의 通告를 正히 諒知하엿다

十三人委員會는 右通告에잇서伊에兩國政府의 戰爭手段에 關하야 國際公約及國際法 諸原則一切에 違反치안토록 모든手段을講究하기를 要請바덧다 伊太利政府는 右要請을 欣然受諾하는 同時에 伊太利政府의 立場을거듭强調하엿다 即

一、伊太利政府는 恒常 國際法規의遵守를 考慮하야 違反한事實이업다

二、同時에 伊太利政府는 國際法規의遵守는 片務的이아니오 相互的일것이라고 信한다 따라 敵軍의慘虐行爲를 停止케하기爲하야 畢生手段을 講究치안흘수업다

防共빨리打破次 中央軍續續北上

【上海十二日發同盟】確實한側에 드러온情報에依하면 最近 江蘇安徽一帶에 駐屯하고잇든 中央軍은 津浦線、隴海線等으로 續續北上하고 잇는 模樣인데 이미 相當한 大部隊가 移動한것이라고 傳한다 右는 共產軍의 山西侵入으로 華北防共問題는 俄然 重大視되게되여 宋哲元 韓復渠氏等 將領間에 赤化共同防衛가 講究되고 잇는데 二所共軍을 打破하기 爲하야 威嚇할 目的으로 北上하는것 이라고 解釋된다 共産軍의 山西侵入을 機會로 中央軍이 山西에 進出하야 閻錫山氏의 山西모로主義를 潰滅식히고 드듸여 中央의 山西의 主權을 手中에넣는 裏面에는 蔣介石氏와 共產軍과의 間에 某種의 諒解가잇다고 까지 傳한다 蔣介石氏의 渡口行에 伴하야 中央軍 今後의 北上은 注目되여잇다

八面鋒

總督府 實行豫算은 不成立한 今年度豫算과 거이 同額이어서 三億二千餘萬圓。

◇

不成立한 年度의 豫算은 前年度豫算을 踏襲하니 그리 될것이 當然한 順序나、

◇

非常時의 豫算이라 追加豫算에라도 農村對策이 잇슴즉한데 追加豫算이 통털어 三十五萬圓에 不過하니 그것으로무엇해?

◇

朝鮮서 땅을 일흔 百姓、滿洲에서 땅을 준대서 가서 조코 移民會社 조흘듯하나

◇

떠나는 마음은 放逐으로 생각하고 보내는 사람 또한 離別을 시려하니 朝鮮百姓을 朝鮮서 살게하는 方法은 都無乎?

◇

이번 實行豫算編成은 自作農創定、失業救濟事業費、初等敎育普及費에 注重햇드면 조흘일。

日曜氣配

◇株式=低金利로부터 現物株에 低位의것은 選擇買로 指目되어 目先은 高含模樣

大新	七四、八〇
東新	一二九、三〇
鐘新	一五〇、八〇
日産	六八、五〇

◇期米=穀物市場하고 好材料一巡 無活氣이나 先高見越에 高値에는 警戒되여잇다 氣配는 小綻

日本內地天候 雨

今日本紙四面

代金全額後拂
道師秘方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龍
藥가 廣告와 다르면 送金치마시요
藥先送 代金은全治後拂이니 藥効가重大、
最極上、確實함은 不問可知
●詳細規則 四月五日及十一日
朝鮮日報平和堂赤刷全頁廣告를보시요
京城堅志洞 平和堂 振替五番

手形遺失廣告
額面 一金千圓也
振出人 仁川府本町三ノ四 山手海三
宛名人 忠南保寧郡青蘿面蘿院里 沈宅鎭
振出年月日 昭和十一年三月日
支拂地 仁川
支拂場所 朝鮮銀行仁川支店
支拂日 昭和十一年四月二十日
右手形讓渡人 沈宅鎭
讓受人 京城府忠信洞一七九ノ七 鄭用喆
右手形은昭和十一年四月十日午後二時半에京城東一銀行構內에서遺失하엿슨즉此手形을拾得使用하면無効로함
昭和十一年四月十一日
京城府忠信町一七九ノ七 吳儒相方 鄭用喆

好職業
大阪天王寺區空ケ芝町 榮本舖

風病

金白銀 特別高價買入
釜山富平町二丁目 吉武金銀店 電話一六四六番 振替釜山五三〇番

一回効散

齒痛과 頭痛에 神經痛에도 大端
당장낫는다고 好評이 자자한 一回効散은 잘낫는다고어느藥房에서나 近者에 굉장이 팔닙니다고한다
【말보다實際一次試用하여보시면 안다】
本舖 東京 大阪 森田펄藥所 全國藥店에잇슴

魚網
極上鮮投網 五分目 二尋 金八圓也 四分目 二尋 金十圓也 捕鳥網 三間 金參圓也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漁具 秋岡商會 電話本局(2)四三九〇 振替京城一二、一五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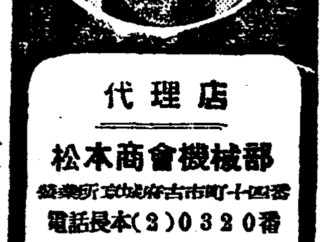
당 색
京城府鐘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一六八番 振替京城八〇八九番 (商報送呈) 定價表進呈

우리 의唯一한
速修講義錄
英語通信研究會

師範學校高普學校 入學準備生募集
募集人員 六十名 入學資格 普校卒業又 願書接受 四月十五日限 規則要二錢郵票
六年制各學年補缺兒童募集 新學院

東洋自動車 生徒募集
◎入學隨意 ◎卒業後就職斡旋 ◎責任敎授
京畿道自動車運轉手 京城 本(2)五四〇二 振京一〇六五九

正木式製材機
創業明治廿七年 最古의歷史 最新의機械



代理店 松本商會機械部
營業所 京城府古市町十四番 電話長本(3)0320番
工場 京城府黃金町三丁目

疆域엔春光도無色 悲劇실은"移民列車"

◇……滿洲가는農民들을甘言으로弄絡

"미쓰"를노리는"이리떼"

【京城】삼천리아강산에 차저든 봄빗도 무심타하며 살길을차저 북만주로 떠나가는 눈물겨운이민들차안에서 또한 장성한딸자식들까지 매매하고잇는 큰참비극(悲劇)이 연출되고잇다 ─ 지난십일일 오후일곱시십팔분 부산을떠나 경성으로 드러오는 제오렬차가 용산역을떠날때 그안에 드리단칠때 별안간 객차안에서는 앙마우리의 우름소리가터저나며 나히를파열세밧게 아니된 꼽다리지꼽처녀 세명이 두중년남자에게잇 끌이어나리고 잇섯다 이에자세한내용을 아러보면 이렬차에는 전남(全南)지방에서 만주철령(鐵嶺)으로 농터개발하러가는 이주민들이 남녀로유합해서 사십류명이라고잇는데 이차가수원역(水原驛)에 다엇슬때 전과 중년남자두사람이 이주민들의객차안으로 드러오며 커다란딸을 다리고가는

裵漢文의딸 先順(一七)
金永老의딸 千蘭(一七)
金廣俊의딸 一寶(一七)

의들을보고 만주가튼 험한곳에 저런처녀들을 다리고가서 욕을뵐것업시 죽도살든 내땅에다두고가는것이조타고 하며 찾아리자긔들에게다 딸고래도가라함으로 일백이십원식을 밧고팔어버렷다한다

이리하야 딸을 팔고가는 부모들과 그들의가는곳이 어듸메일가?의 섭섭해하는 동승자들의우름이 착종(錯綜)해서 역구내는비참한분위긔가 떠돌앗섯다

紛料中의平壤西城里 四十七戶破壞着手

執達吏와十餘警官保護미테 吳地主의最後發惡

【平壤】휴보[illegible]자저문휴구배석이나 울리엇뿐아니라 한평에이십오원에산토지를 필배휴십원식이나 호까하여 채지인오십사호 월배오집세상사리 일천오백명으로하여금 공포의구렁에 모라넛케한서성리(西城里)이실구번지소유자 평양부내 진정유곽(賑町遊廓)영평루(永平樓)경영자 오경순(吳京洙)는 법률의 힘을비려가지고자긔와 행동을 가리하고잇는 강서상회(江西商會) 조용림(曹用林)외 몃호를 제외한 실칠 호에 대해서는 집달리와 수십명인부를대동하고 경찰관 십여명의 엄중한보호리에서 십일일오전열시부터 파괴작업을개시햇는데 제일착수로 곡물무역과 비료상을 경영하는보성상회(寶成商會)장의간(張義幹)의집부터 파괴를개시햇다

삼천여원을드려 건축하야 안주하든 주택일뿐아니라 영업장소를 일시에일허버리게된 장씨의 가족들은물론 가튼환경에봉착한 사십칠호주민들은 통곡을하여 처참한광경을 보혓고우리는 오늘부터어대로가야올소?이 기막히는 사정을어대다가 호소하오 아ㅡ이놈아 이불한당놈아 이러케하여 돈모아압호로 잘사나보자!원통해라 기막혀라 하면서 통곡을계속하는 반면에집합한 는 소래가서기어 현장은무엇이라형언할수업섯다

압호로 메칠동안을 계속하여 사십칠호전부를 헐어버리기로되엿는데 이건축물까지도 시비중의 차지료로 잔인하게도 차압을하여버려 사십칠호 주민들은 다른장소에 개축을하지도 못하게되엿다

그런데 이제헐니는장소는 서성리 철도선로 부근시가지로서 회성상회와가튼 큰장에잇는 상점만도 십여호에달하고 그외에는 전부주택인데 오지주의요구와 부근의지가는 대략다음과가타서 차지인들의 평장도 실로딱하게 되엿스니 오지주의요구하는 땅갑은 도로면(道路面)으로 백륙십원 그뒤가칠십원 또그뒤가사십원이며 차지료는 도로면 칠십전 그뒷면사십전 또그뒷면삼십전으로 이전에는 모다가 팔전식이든것이다

그런데 이마즈편 더욱 번화한장소인 서성리우편소·부근일대는 경긔현(鄭起鉉)씨의 소유로 시가면에도 륙십팔원을 밧고잇는터이어서 얼마나오지주의 요구가 가혹한가를짐작할수잇다

엇잿든 이문제는 평양발전상 십상치안흔 중대사회문제일뿐아니라 일조에 안주지를 파괴하고 쫏기는일천오백명 주민들은 어대에 수용할것인가 경찰당국으로서도 응당대책이잇서야할것이라고일반은이야기하고잇다【사진은헐니는집들과쫏기는주민들】

◇人波────(오늘창경원입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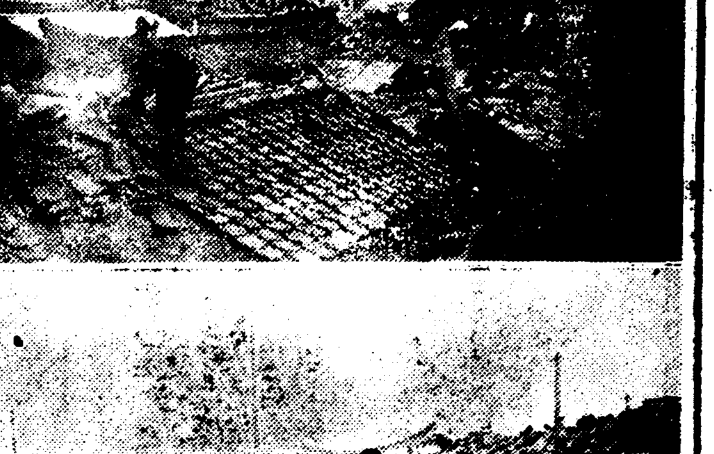
木俣氏의彫刻入選

작년칠월 본사주최의 신문전람회에서 여러가지로 애를만히 써준 목호(木俣)씨는 지난삼일부터 십팔일까지동경상야미술관(上野美術館)에서개최중인 제십일회 국화회전람회(國畵會展)에 반입한 이백이십점가운대에서 사십이점이 입선되엿는데 목호씨의 조각"머리"가 입선 되엿다한다 그리고금년의 선전에는 부산에서 출품하리라하며 오는오월말이나륙월초순경에는 경성에 올터이라한다

經營難의恩露學校 새校主마저回生

鷺梁津有志가歡迎宴

【永登浦】삼십년이란 오랜 세월을 가지고 이래만흔 제이세국민을 양육하여온 시내로량진(鷺梁津)은로학교(恩露學校)는 그역사가 오랜만치 만흔파란곡절을 격거오다가 최근에는 사천여원의 빗까지 지고 경영난에 빠저 풍전등화의 비운을 당하야 그전도가 매우우려되엇섯는데 금번에 명수대주택지 경영자로서 회사사업에 만흔기부를한 특지 목하영(木下榮)씨가 자진하야 학교의채무를 전부청산하고 그경영을인수하야 약오만원의 예산으로학교를 신축하는동시에 모든설비를 일신하야 공립학교에 손색이 업는지정보통학교로 승격식힐 예정으로 목하 영등포공립보통학교(永登浦公普校)를 모방하야 설계중이며 근근부지정리를하여가지고 느저도 금추까지는 준공이되도록 공사를 진행할계획인데 전도가 암담하든 은로학교를 이와가티 붓들어준 목하영(木下榮)씨의 특지에감격한 유지와 학부형기타 오십여명은 십일일 오후일곱시에 태서관별장에서 성대한환영연을 베풀고 동씨의 특지를 칭하하엿다한다



橋北町에棄兒

십이일오전한시 부내교북정(橋北町)사번지의일백사십삼번지 송선복(宋善福)(二三)씨집문안에는 어떤사람이이월십이일생이라는 조희쪽과 함께 어린사내아해를 집어너헛슴으로 그집에서는 곳소관서대문경찰서에 통지하는 한편 림시로그어린이를 보호중이라한다

龍岡、江西、江陵의 炭坑에地下運動

最高責任者로活動하던金銖 十日、定州檢局에送致

【定州】남경군관학교 사건이면 독자들이 잘알고잇스며 임이사건이일단락을보고 관게자들은 방금 복역중인 이때에 또다시 그사건의 부두목(副頭目)격인 인물이 정주서에 검거되엿다。본적을 정주군 곽산면 석동(定州郡郭山面石洞)에 두고 평양부상수구리(平壤府上水口里)에거주하든 김선(金銖)(二五)은 소화칠년에 남경군관학교사건의 최고간부인 김창일(金昌日)과 만나서 조선안에 공산당재건운동을 일으킬것을 밀의하고 김선은 이래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가지고룡강(龍岡)강서(江西)강릉(江陵)등지의 탄광지대의 지하운동의 최고책임자가 되여가지고맹렬한운동을 게속하든중 지난번 사건이 발견되여 련루자가 체포되자 종적을감추어 교묘히수사망을 탈출하여잇는것을 작년십이월에 정주서원의손에 체포되여 이래엄중한취조를 밧다가 지난십일 일건서류와가티 검사국으로 넘기엿다한다 그러나 자세한것은 비밀에 부치므로알수업다

비도오고는불것

柴炭갑이붓적내려 暴騰에서四割乃至二割로

【咸興】지난팔월에나린 홍우로 인하야 한강들은 지난구월부터 불기시작하야 약두미돌가량이나 불게되엿다 예전가트면해빙직후에 곳강물이불어서 상선왕래가 편리하엿스나 금년에는 해빙후에도 별로비가 넉넉지못하야 강물이붇지못하야 선박왕래에 지장이불소하든것도 일소되엿슬뿐 아니라 극도로폭등하엿든 시탄갑도 삼할내지이할가량이 저락되엿다고 한다

安州高普開校式

지난十日盛大히擧行

【安州】부호 김인오(金仁浯)옹과 안주지방인사들의 렬정의결정으로 창설된 안주고보는 드듸여 금춘부터 개교케되야 지난십일에 력사기픈 안주백상루(白祥樓)마당에서 초대교장 복부(服部)씨사회로 성대한 개교식을 거행하얏는대 당일은 일긔가맛고 시원한가운데 평남도지사를 비롯하야 각게인사들다수가 참집하야 장엄한 가운데 식을마첫스며 뒤이어 입학식도 거행하얏다고한다

"그이는그랫더래도 나는그이의안해요"

一男二女를養育하는本妻의말

도라오지안는아버지篇(二)

노래일흔카나리아 安基永●金顯順

려녀 안긔영은 웨지위와 명예와 가정을 헌신발착버리듯하고 그의제자 김현순과 어그려진 사랑의 가시길을 밟버 한이빈(哈爾賓)으로 북평(北平)으로 상해(上海)로 동경(東京)으로 류랑(流浪)의 생활을 계속하게되엿는가? 과연그가 말하는바와가튼가정불화에 말미암음일까? 또는 사랑의 시련에 유혹에 사로잡히여 사랑은 모든것을 초월한다는 련애지상론(戀愛至上論)을 고독의 신조(信條)보다도 더밋지안흐면 안되게되엿든가?

◇

레너안긔영은 참으로 그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안해를 가젓스며 참으로 남이보기에도 부러울만한 행복스러운가정을 가젓섯다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안해 리성규(李聖圭)와 그의외아들과두딸은 도라오지안는 남편과 도라오지안는 아버지를 괴대리고잇다『그릇되일을하여도 나의남편은 남편이요 그애들의 아버지는아버지이니 그에게 무엇을원망하며 무엇을원합니까 다만그가과거의 그릇을 뉘우치고 다시도라올때만 기대립니다』 하는그의본안해 리성규녀사의얼골에는 자그만한 원망과질투의 빗조차 엿볼수업고 다만그의남편이 사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비평을바드면서도 지나간잘못을 고치지못하는것을 애석히 여기는빗치 가득할뿐이다

◇

강남갓든제비도 도라오면은 옛주인을 차저들것만 류랑생활사년만에 고국에도라온 음악가인 안긔영은 남편의 회개할때만기대리고 어린아들딸 셋을 끔게끔게길르고잇는 그의 본안해의 집에는 지난삼월십일일에 도라와서 이미달이 지나갓것만 다만한번도 그본안해의 문턱을발붊일이업스며 팔순이나된 그의 장모가 병석에누어 신음하면서 전날의 사랑하든 사위를생각하야 한번만 만나보고죽으면 눈을감고 죽을수잇겟다고까지 중간에 사람을노아 여러번 청하엿건만은 그는 듯지도 못한체한다고한다 그는 사랑에 사로잡히여 영영 도러가지안는 남편이되고 아버지가되려하는가?

◇

레너 안긔영이 웨사랑의 도피행을 하게되엿는가를 발키려면은 그와 그의본안해 리성규녀사와의관계를 좀 지리하지만 되푸리 안할수업다 안긔영과그의본안해 리성규와의결혼도 련애결혼이다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약이십이삼년전 안긔영은배재고보(培材高普)를 다니고 리성규는 숙명(淑明)녀학교에 다닐때에 종교관게로 서로알게되야 사랑의실마리가 풀리게되엿섯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서로 나히가 어렷슬때이라 서로아지못하게 사모는 하엿지마는 인사도하지못하엿섯다한다 그러다가 리성규 녀사는 숙명을 졸업하고 연습과(演習科)를 거처 열여덜되든해에 지금 공덕녀학교(孔德女校)에 교원생활을 하게되고 안긔영은 배재를마치고 연전(延專)에 입학하게되엿는데 안긔영은 그때부터도 성악을 잘하야 공덕녀학교가 예수교계통이니 만큼 그학교에 음악을 가르치러 오게되야 서로자주만나게 되엿섯다한다

(사진은 안긔영과 리성규의 결혼긔념촬영)

小少離鄕三十年에 이제야一片喜報

돈버리나가서죽은줄안男便 滿洲國滿洲里에健在

이런夫婦도잇다

【開城】아버지가 죽은줄만밋고제사드린지 삼십년된 오늘에다시살어오리라는 꿈가튼사실!! 개성부고려정(高麗町) 사삼공번지김시학(金始學)(三一)의친부 김공선(金公宣)(五一)은 지금으로부터 삼십오년전 강원도 홍천(洪川)에서 원동춘(元東春)(五〇)과 결혼하야 전기시학을 나엇는바 그후집안이 몹시가난에 쪼들니자 한번해외로 나가서돈을잡어가지고 금의로 환고향하리라는 굳은결심을먹고 자식이 두살먹든해 수무살된 젊은안해를 버려두고 해삼위(海參威)로 여러 친구와가티 『고추가룬』장수를 떠낫섯다 한다 그후 일변만에 가치갓든 동행들은 모다 돌아왓스나 동혼의 남편은 만흔 잡히다는 소식조차 알수가업섯다 이러케 한만흔 꿈가튼 직히기를삼십년!그래도 역시 한장의편지도 업슴으로 이때는 자기딸자가괴부된줄로만밋고 오죽 자식에게정을부처 불행한 모자의 장내를 죽은남편의 혼백에게빌며 해마다 제사를 드려왓섯다한다

그런지 꼭삼십년이되여 자식의나히 설흔한살이 된 금번삼월오일에 시학의집에는 부전이 여러붓흔 편지한장이 항공우편으로 만주를거처 날러와기에또터보니 꿈밧게도 그것은 죽은줄미덧든 아버지의소식! 고만아연실색한 두모자는한참동안은『이것이꿈이냐아니냐?』하고 머ㅡ○하니 잇섯든바 그가잇는 현주소는 만주리 삼강성하현단、사칭조선인민회(滿洲里三江省樺縣新山鎭、朝鮮人民會)이라한다

現職警部補呼出

民間側告訴에依하야 井邑檢事分局에서嚴重取調

【全州支局電話】전북경찰부관내 모서에 근무중인 모경부보에 관한 고소사건은 조간에 이미 보도하엿거니와 지난십일엔십삼일 민간 모씨로부터 고소장을 바든 전주지방법원 검사국 정읍(井邑)분국에서는 곳 활동을개시하야 관게자전부를 불러다가 취조를마추고 돌려보냇는데 사건이 현직경관에관게된 사건이니만큼 이후어떠케발전될지 자못일반의 주목을끌고잇다

告訴된件事實 感情問題인듯

井坂全北警察部長談

이사건에대하야 정판(井坂)전북경찰부장은다음과가티말하엿다

사실이잇고업는것은 방금취조중으로 상세치못하나 좌우간 부하에 이런사건이 일어난것은 불상사입니다 고소를한사람과 고소를당한사람은 서로 직접으로 감독을 밧고 감독을 하는 관게에 잇는터인즉 무슨감정관게가 잇지나안한가합니다 철저히사실을조사하야 적당히 처리하려고합니다

마음검은雇傭老婆

부내 신당정(新堂町)이백사번지 전중좌의문(田中左衛門)씨방에서 팔일오후팔시쯤에 현금륙백오십원이업서저서 수사한결과 수일전에 전기 전중씨집에 고용으로잇는 무등공오랑(武藤藤五郎)이란로파가 훔처가지고 다라난것이 판명되엿다한다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阿峴 本舖 普生藥房

水王產婦人科

朝鮮語學會定總

시내화동정(花洞町)일백이십구번지 조선어학회에서는 지난십일일 오후네시부터 제십오회 정기총회를 열고 그회의 간사장리회승(李熙昇)씨의 사회로 지난일년간의경과보고와 규측수정과 회무발전에 대한 의안을 토의하고임원을 개선한바 그씨명은 아래와가타다

幹事長李克魯 經理部長李萬珪 庶務部長金允經 會計部長崔鉉培 出版部長李允宰 圖書部長李熙昇

天氣予報

槪況 低氣壓은 琉球에잇서 北東으로 進行中이며 高氣壓은 中國內陸과 日本海에떠처고잇다 滿洲朝鮮은 흐리고西日本은 降雨가잇스며 關東地方以北은 흐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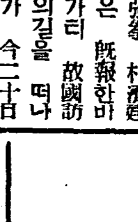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개엿다 흐렷다하며 明日도개엿다 흐렷다한다 京畿道全區도가타

昨日最高 一五度三
昨日最低 二度三
今朝最低 五度八
今日正午 一四度一

運動競技

上海의無敵强拳 朴君入京

外人選手도來京



國際都市上海에서 活躍하든 無敵强拳 朴濟建君은 旣報한바와가티 故國訪問의길을 떠나 途中 東京에들녓다가 今二十日 午前二時五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 마네자李申成氏 引率下에 그리운 故國의땅을 밟엇다 그리고 上海에서 昔日의 名將이든 『싸크라멘·조』(比)選手와 『빠킹·조』(混血兒)選手는 前記朴濟建君의 親兄濟道氏引率아래 來二十日頃에來京하야 四月下旬頃에는 京城運動場에서 職業拳鬪의豪華戰을 擧行할豫定이라한다 (寫眞은 入京한朴君)

對早大력비戰 『鐵道力戰不及』

三一對零의大差로

早大對 朝鐵력비戰은 十二日午後二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審判根本(主)伊藤、杉本(線)三氏 朝鐵先蹴으로 開始하엿다 西南微風의 良好한『컨디슌』아래 早大의攻勢자못 猛烈하야 朝鐵始終苦戰에빠저 結局三十一對零으로 早大快勝하엿다

早大31 (15 16……0 0) 0朝鐵

水上候補新記錄

【東京電話聯合】日本水上聯盟主催오림픽水上候補選手公式屆水路記錄會는 十一日午後一時부터 帝大室內풀에서 擧行한바 水溫二十二度로 四百米自由型에는 根上選手가 四分四十五秒五로新記錄을지엇다

安心劑

어떤 사람이 자기병으로인하야 의사에게 진찰을 바덧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생각을 늘 유쾌하게 가지는것이 무엇보다도 조흘것이라 하며 조흔 소설책 한권을 읽으라 하엿다 그러나 그 사람은 머리를 흔들며 그 방문을 의심하엿다 의사는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극장으로 가서 구경을 잘 하여보시오』 하엿다 그 사람은 역시 머리를 흔들엇다 『그러면 다시 한 말을 더할터인데 이것조차 듯지 안흐면 더 할 말이 업소이다 다름 아니라 요즘에 어떤 배우 일행이 왓는대 그 유쾌한 유희는 참 인기가 비등하다니 그 사람은 더욱 실컷 유쾌한듯이 말하기를 『내가 곳 그 一행의 수령되는 사람이오』 하엿다 과연 사람이 사람의 재조로 사람을 일시적 깁부게할수 잇스나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할수가 업고 따라서 영원한 기쁨을 줄수 업는것이다 그런즉 여러분의 오수 사려는 어찌 할가 『예수』 말슴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섯다

質疑는京城鍾路朝鮮耶蘇敎書會編輯室로

一穗五百粒

寒暖各地大好評水稻珍種大韮金光 發見無肥料로一穗五百粒從來보담 四倍增收絶對多收穫大利播期切迫 試用一袋卅錢分移秧五十二錢 京城振替 富農社

農林省副業獎勵

軍手製造

專屬製造家募集

掌甲은말할것도업시季節업는實用品으로 販路는世界的으로益益宏大하야前途洋洋한 것製品은언제나不足되는狀態 從來의거와가튼能率이低한製造機로서는現在의大需要에不足되며、또한製造者도利益이업습니다。今回本社는劃期的의優秀機의大發明을完成하야玆에

十一年度高速度能率機

를新式으로本社專屬者에만提供하야時代에뒤느진機械를쓸것아니라、누구나使用키便하고能率百倍의十一年式으로大能率을올여、利潤만키를바란다。製品은全部永久히引受하며 原料는配給하고 責任을지게되오나 山間僻地에서도安心하고 副業으로 收入됩니다。製造法無料로敎授하며 副業을希望하시는분은 申込次第詳細한案內書無料로郵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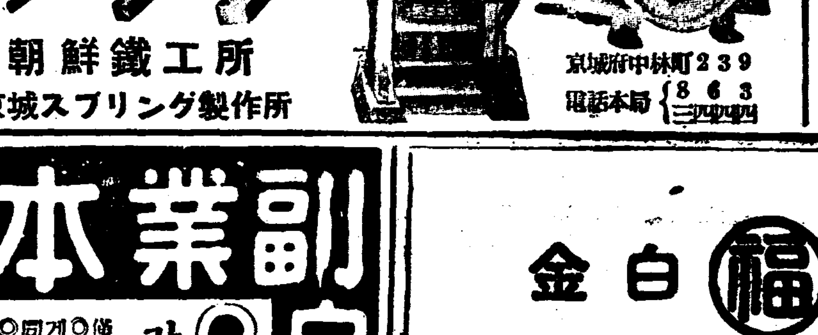
豐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十九番地

Columbia 流行歌 絶佳盤!!

빗나는靑春 (四○六六○)
希望의鐘이운다 (四○六五四)
蔡奎燁

恩給 長期據置廉立替 他店에比較해事業最有利 信用은弊店의特色乞照會回答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朝鮮鐵工所 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京城府中林町239 電話本局 863

直輸入商 內地米 白米 玄米 精白米 中粉 赤豆 釜山大倉町四丁目五番地 東一精米所 代表者尹貞浩 電話一九九〇番

ゴム印 ゴム活字、柄付每字三錢 鑄造ゴム印、書體自由每字三錢 彫刻ゴム印、書體自由每字五錢 小註文振替先金要 京城府堅志町五五二 ゴム印製造 印章百貨商 仁昌堂 振替京城一三七三番

副業本業 自宅で儲る ◎專屬製造者募集 가장安全確實히된다

◎僅少한資本으로一家安全하게되는前途有望한업 게되는年中無休永久계속 ◎遠近不問하고副業又는本業으로婦女子에게도便하 同業競爭者적고地方에따라獨占的事業이됨 ◎製品은弊店에서永久取引함 ◎素人도可하니眞實한분에申込次第依頼함 ◎見本及案內書無代進呈함

大阪市港區市岡元町四丁目拾參番地 マルハマ紙工業所 電話西六二四〇番

金銀白金 福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電話下谷(83)九五九〇番 二九九〇番 五八二〇番 八八〇〇番 振替東京六八八番 受信略號 (トウケイフシク) 出張所 平壤府旭町

四月十日낫부터三日間特別興行 每日三回興行晝間二回十二時부터 六時까지夜間八時 大衆料金 階上席十五錢 階下席十錢均一 모노크람映畫社超特作 全發聲日本版 올리암나이氏監督 猪突猛進 종·다로ㅡ氏 메리ㅡ부라이양孃主演 酒色賭博으로지내는한사나희百萬長者에딸과結婚前夜에賭博場에서口論中經營者가엇던者에게射殺을當하얏스니이汚名을쓰고警察署로! 護送中汽車에서河中으로逃亡하야眞犯人을探索!脫獄!ㅡ그리하야 그의活躍으로말미암아冒險格鬪後의逮捕되여汚名을벗고新婚生活로

마키노푸로덕슌超特作全發聲 中山七里 奧津武氏 市川小太夫氏主演

獨乙나쇼날特作無聲版 에·리와슈넬監督 水泳女人國 리ㅡ파리ㅡ孃主演

次週豫告 나는善人이다、水兵의母、指紋迷探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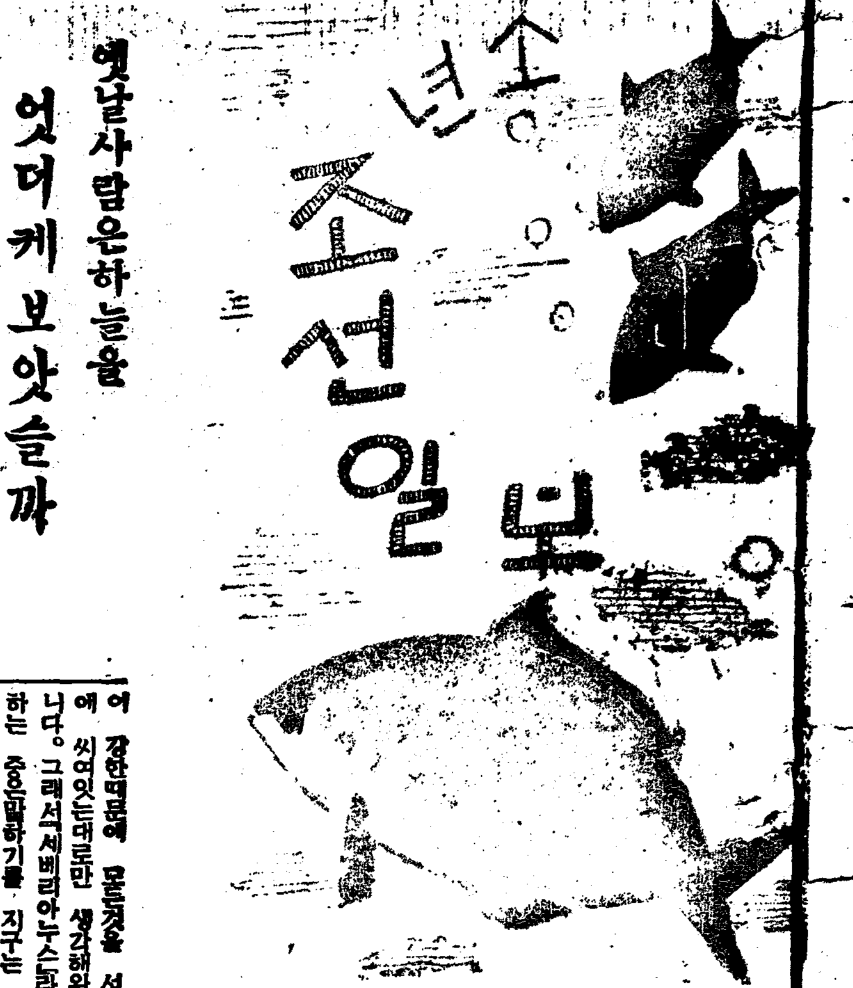
여러분의 鍾路五丁目 第一劇場 電話光一三番

待望의豪華版 一九三六年의大放送 宣傳週間 四月十二日브터大封切 米國마스곳도社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포ㅡ드비ㅡ辛氏 武俠一代 빌리ㅡ마크라그랜氏主演 후루ㅡ스ㅡ캐孃助演 愛妻를버리고子息을버리고轉轉亡命하든密輸入者의설음!旅路에서敵戰에서기인내子息을爲하여暗闘의狂奔하는아버지의마음!熱血巨星의名演의野獸篇

파社特作全發聲西部猛闘篇 싸우는幌馬車 할스비ㅡ론氏監督 랄푸폭스곳도氏主演 몬도ㅡ푸유氏ㅡ 게이ㅡ루ㅡ바도리ㅡ그孃ㅡ助演 往年의名聲이아니오후스를裝囊하라 스트진의歷力과快活한飛躍!西部劇中의白眉!

大都映畫社特作時代劇 岡田敬監督作品! 熱血荒神山 海江田讓二 主演 琴糸路孃 助演 次週封切一九三六年의大放送

黃金町 優美館 電光三九五



옛날사람은하늘을 엇더케보앗슬까

심 태 순

우리가 제일 먼저아는것은하늘과 땅입니다。여러분이 천자(千字)라는책을 배워보면 맨첫픡대기에 나오는자가 하늘천짜고 그다음이 따지짜입니다。

그러면 땅은 우리가 살고잇는 이것이지마는 하늘은 엇더한것인가? 우리가 머리를 드려서 치어다보면 그저 한업시 넓고 푸른것이 하늘이라고합니다。

그러면 저하늘이라는것은 무엇이며 또한 엇더케생긴것인가 하는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쉽게말하면 천문학이라고합니다。여러분중에는 나종에 천문학을 연구하실분도 게시겟지마는 오늘날과가티 모든 학문이 발달하기까지 어른동안 다시말하면 천문학이라는 학문이 아직 생기지안엇슨 녯날사람들이 하늘이라는것을 엇더케 생각하엿든가를 이야기하겟습니다。

첫재 녯날사람들은 하늘도 땅과가치 한덩어리로 되여잇는것으로알엇습니다。그래서 이하늘덩어리에는 불도잇고 모든 신의 궁전가튼것도잇스며 나무나 산들도잇다고 생각해왓습니다 아모것도 꼿는것이업는 한울에서 비도오고 눈도오는것을보면 하늘에 이비나 눈을 무엇에담어 두는곳이잇스리라고 생각한것입니다。

그리고 별들은 엇더케해서 반짝거리며 또한 떠러지지도안는가하는것도 이상스러웟슬것입니다。그래서 별은 한울에서 달어매여노흔 등불이라고생각햇습니다。이것은 모다 사람의 지혜와 학문이 발달되지못한때문이지마는 지금부터 한 사오백년쯤되는 중세긔라고하는때는과학의 발달보담도 교회의 세력이 강한때문에 모든것을 성경에 씨여잇는대로만 생각해왓습니다。그래서세베리아누스라고 하는 중은말하기를 지구는 둥근것이아니고 편편한것인데 해가 저녁때되면 서쪽에서 저서 지구의 밋을통하지안코 지구북쪽으로도라서 다시 동쪽으로 나타난다고하며 한울도 둥근것이아니고 맛치 차일가튼생겻는데 더구나 하늘은 둘이잇서 맨꼭대기 하늘집웅우에 물이 담겨잇는데 비가오는것은 그물이 떠러지는것이라고하엿습니다。이것은 물론 다거짓말입니다。그러케 어리석게 생각하는동안에 오늘날과가튼천문학이 발달된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중에서도 과연 하늘이란 엇더케생긴것이며 무엇인가를 한번연구해보십시오

관이 잇을딱 버리시 엇다나

이런때는어쩔레

비단을끌고나간 김동봉의지혜

김동봉(金東峰)이라면 다아다시피 사백년전에 절개도 놉고 시도 잘하든 어른이다。동봉은별호요 원이름은 시습(時習)이란다。일고 여덜살때부터 신동이라고 소문이 낫고나。그때의상감님은 세종대왕으로 나라일도 잘하시려니와 글도 조하 하시든이지。그래서 참말소문과 가튼가 안가튼가를 보시려고 김동을 불러드리어 시험을 보이섯겟다。조그만 아히가 한문으로 시를 어찌 잘짓는지 세종대왕도 고만 탄복을 하섯단다。그러나 아모래도 어린 아히지 무슨 의사가 잇스랴 고 비단을 아홉필인지 여덜필인지 상금으로 주시면서 네가 꼭 가지고 나가거라 이르시지 안햇겟늬? 비단이 팔구필이면 약한 어른은 어른도 힘들텐데 항차 십세이내라 어떠케 들거나 지고가겟늬? 김동봉은 두말업시『네』하고 대답하더니만 비단 필을 풀어서 모도 자버매거든。그래서는 한끄틀 허리끈에 찌르고서 질질 끌어서저혼자가지고 나가겟지。참말로『신동이라고』상감님이하 만조백

童話 원숭이모자

金 相 德

언-날! 원숭이는 바람에불녀서 떠러진새의 보금자리하나를 어더엇습니다。나무뿌리와 보드라운 새의 털로서 동그랏케 어엽부게 만든것이랍니다。원숭이는 새보금자리를 머리에다 모자처럼 써보니까 꼭 드러마젓습니다。원숭이는 조와서 이리저리 도라다니며、『야! 이훌륭한 모자보아란』하고 동무들에게 자랑하엿습니다。동무원숭이들은 그것이 부러워서 나도나도하고 이산으로 저산으로 새보금자리를 어드려 도라다녓스나 하나도 엇지못햇습니다。그래서 동무 원숭이들은 큰 느트나무밋헤 모여서 엇더케하면 우리도 모자를 어더쓸수잇슬까하고 의론들을 하고 잇섯습니다。그때 그중나희 만허보이는 원숭이가 일어나드니 나무우에올나가서 어더보자고말햇습니다。그래서 여러원숭이들은 이말대로 나무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엿습니다。맛츰 그때 이느트나무우에서 살고잇든 새가 이얘기를듯고 깜짝놀나서 이나무저나무로 날라단이며 모든 동무들에게 이소식을 알녀주엇습니다。여러동무새들은 큰일낫다고 벌벌떨엇습니다。그러나 그중에도 흰새한마리가 무엇을곰곰히 생각하는

모양이드니 올타 조흔수가 잇다하고 어데로인지 날아 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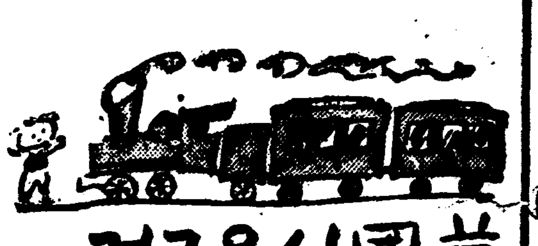
×

그산밋헤는 소복한 잔솔이잇고 그아래 양지빠른마을에는 오분이의집이잇섯습니다。오분이는 얼골도입뿌고 마음도 착햇습니다。또 여러가지 색실로 수를 잘놋는재조도 가젓습니다。오늘은 오분이가학교에서도라와 옴바의온동모자를맨들고잇섯습니다。흰새는 오분이를차저왓습니다。『아가씨 저는이산속에서사는흰새입니다 그런데 큰숲에잇는 원숭이들이나와서우리들의 보금자리를빼서가지고저이들의모자를 맨들겟다합니다。그러니 모처럼 알을나서새기가되랴는이때에 보금자리를빼기면 엇지하겟습니까 아가씨어려우시지만 원숭이들의 모자를 하나씩 맨드러 주십시요 그래서 저이들을 구해주십시요』하고 울며빌엇습니다 마음씨고흔 아가씨는『아이구 가엽서라 내모자를 만들어줄테니 아무념려마라 어서가서 원숭이들이나 불너오너라』하고 오분이는흰새를위로하야주엇습니다。흰새는 몹시깃버하면서한편으로는 동무새들에게 이깃븐말을전하고 또원숭이들을불러가주고 왓습니다。원숭이들은 여러가지 색실을보자 제마음대로 흉은 파랑실 흉은노랑실로 머리에맛게 모자를 떠달래가지고 한참이나 깃버서춤을 뎃뎃뛰어다니다가 산으로 도라갓습니다。

모든새들은 이제야맘을놋코 보금자리에안저서 고흔알들을 따뜻한품에끼고 어서 빨리색기될날만기다리고 잇섯습니다。 쯧 四月九日

◇타조의애기◇

여러분은 동물원에 가섯슬때 타조라는 새를 보섯겟지요。목이 길다랏코 사람보다 더 키가 큰새랍니다。이새는새중에서 제일큰새요。또 날개업는새가 이새입니다 이새는 날지 못하는대신 늘 거러다니기때문에 다리의힘이 세여 뛰기시작하면 엇더케 빠른지 말이 못따른답니다。그건그러라하고 타조의알은 큰참외만큼식합니다 닭은 알을 품어서 색기를 까지만 타조는모래사장에 알을 나어노흐면 해볏헤 제절로 까저서 그속에서 색기타조가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서는 타조의알을인공부란기로 까기게가 잇는데 이기게로알을 까게됩니다 자-인제는 사진을 보십시다 사진은 미국로산젤스파-크 어느동물원에서 백인것인데 타조의색기가 막알을 까고오는것입니다 뭐귀엽지요?



정말의서울「코펜하-겐」

여긔는「코펜하-겐」이다 우리들에게 금싸락기가티 조흔이야기를 만히 남겨준「안데르센」선생을 나흔뎬마-크의 서울「코펜하-겐」이다。본래「덴마-크」는 구라파의 북쪽해안에잇는 조그마한 나라임으로 우리 조선과가티 반도로되여잇다。그러나「코펜하-겐」은 이반도에 잇는것이 아니고「스에렌」해와의 중간에잇는「세르란드」라는 섬의동쪽에잇다。그럼으로 나는 여긔올때 한쪽에서 배를타고 바다를 건너「코펜하-겐」항구로와서 내렷다。이리오는길밧고는「세르란드」섬의 서쪽끗친「코르소르」항구에서 내려서 다시 긔차를 타고오는길도잇다고 하기는한다。그런데 본래부터 이도시는 북구의「파리」라고하는 말을듯기는햇스나 와서보니 과연 이도시는 매우 께끗하다。

이나라사람들은 부지런하고 께끗한것을 조하하는 성미가 잇서「오란다」사람들과 가티는마을 거리에나서보면 골목마다 행주질을 친것가티께끗하고 집집마다 문안에는 꼿을 볼수가업다。게다가 건축물가튼것도 모다 장대하면서도 아담하여서 이시가지를보면 이나라국민들의 성격이나 취미를 짐작할수가잇다。

이도시는 얼마전만해도 십이세긔까지도 조그마한 한개의 벽촌에지나지 못하엿섯는데 일천이백오십사년에는 독립도시가되엿고 또 일천사백사십삼년에는 이나라의 임금님「크리스토파-」라고 하는분이 여긔를 수도로 삼은뒤부터서 급격하게 발달되엿다고한다。

이시가의 한복판에「라-드하우스」라는 시청(市廳)이잇고이시청압헤「라-드하우스」광장이 잇는데 이시가를 통하는 모든길이 다여긔서 시작해서 사방으로 떠지고잇다。이광장엽헤「다니슈·루네상스」라고 하는것이잇고 그엽헤 놉히가 일백십메-터-나되는 놉흔탑이잇서서 여긔서 내려다보면 이시가의 아름다운 풍경이한눈에 다드려오는것이다。[illegible] 그리고「코펜하-겐」에서제일큰거리로 [illegible] 까지 이르는 가도이다。이거리에는신구시장과 재판소、각회사 은행가튼 놉흔 빌딩이 벌려니드시 느려서잇고 위대한 건축가「한센」의 손으로 지어진「노-트르、담」자원도 이거리에잇다。오늘은 우선 이만하고 다시 또 다른데로가서알려겟다。

사진은「코펜하-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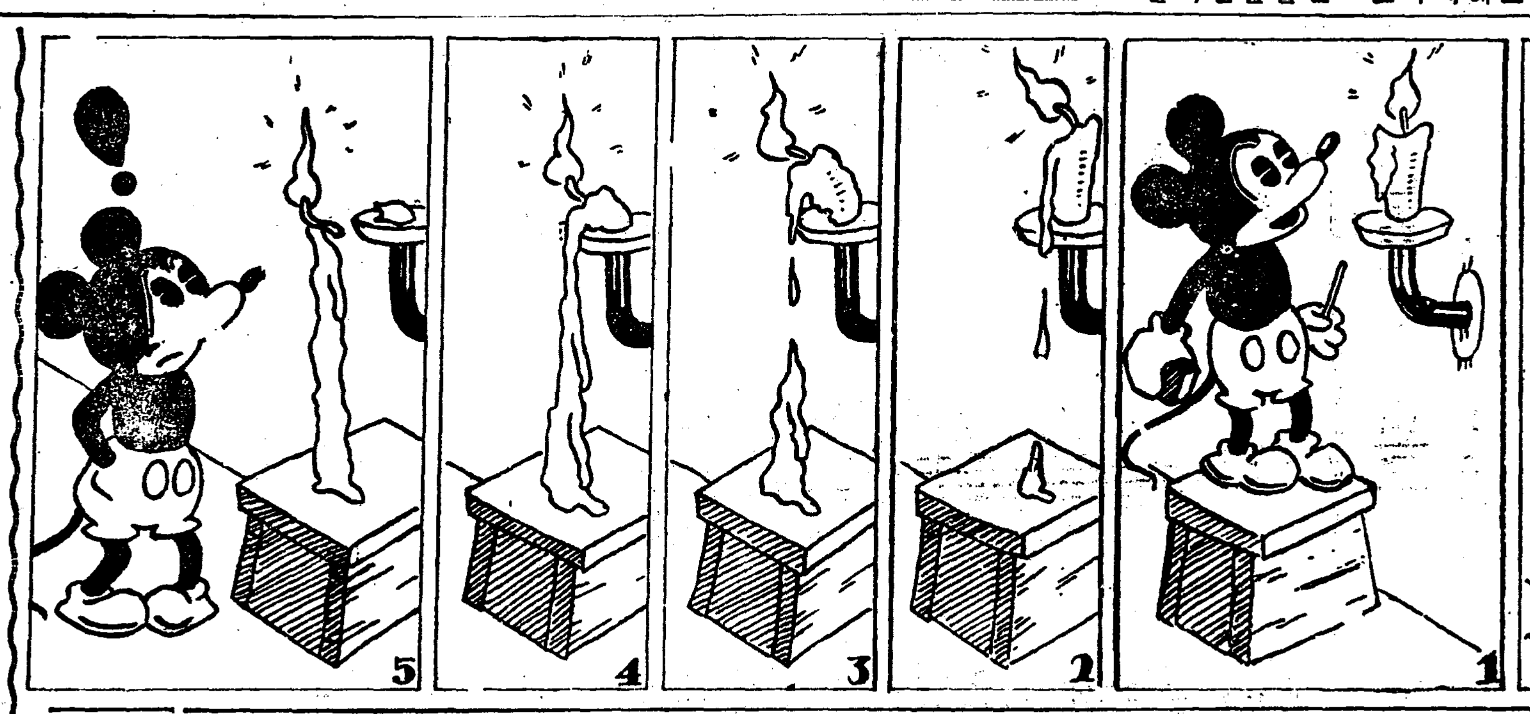
조회시간

우리가 학교에 온지도 벌서 한주일이 되엿습니다。이제는 선생님의 얼굴도 알고 동무들의 일홈도 익어갑니다。날마다 학교에와서 동무들과 뛰고 노는자미가 참좃습니다。인제는 우리도 정말학생이 된듯십습니다。선생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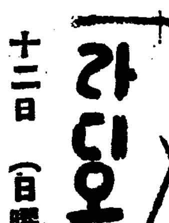
『거리에서 한눈을 팔지마라。전차 길에서 동무들과 놀지마라。가가에가서 군것질을마라。학교가 파하거든 바로 집으로가라。집에가서는 선생님의 하신말슴을 어머님께 고하고、집안어룬이 하라시는대로 말을잘들으라。동무와 싸우지말고 욕하지마라。』고 일러주시엇습니다。우리는 선생님의 말슴을 잘직히어서 조흔사람이 되랴고합니다。

이상한 초

金湘地



라디오



十二日(日曜)

◇午後六時 童謠 一、齊唱 동요 [illegible] 二、獨唱 시집간누나 三、齊唱 용용야옹나 四、同 [illegible] 五、獨唱 꾀리이야 六、齊唱 봄노래 七、同 오리떼 八、獨唱 집보는소녀 九、齊唱 나물캐는노래 伴奏 金龍燮 忠信學院兒童

◇同六時三〇分 兒童週間新聞

◇同六時四〇分 心田開發 金顯大

◇同七時三〇分 野談『雁門途起』 [illegible]秋岡

◇同八時 合唱 一、合唱『아름다운아츰』지베류스作 二、(가)男子二部合唱 女子三部合唱『主는復活하셧다』꾸-노作 (나)高音獨唱과合唱…(떼메론)『생명으로엇울이다』노-노作 三、바리트獨唱…(安大善)『푸른山』꾸-노作 四、合唱(가)『霜스런예수』 드보르작作 (나)『門을열어라』 꾸-노作 西洋歌會議指揮 指揮 미스·영 伴奏 안쉬라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界面 二、弄 三、羽樂 四、界樂 五、編 文明仙 金錦桃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東) 獨唱 一、歌劇『미나온』으로부터─『그대여아는나냐조흔나라를』 토-마作曲 堀內敬三譯詞 二、(가)『자장가』 (나)嘆息의『세레나-드』 도체리作曲 妹尾幸吉譯詞 (다)『故鄕의하늘』小學唱歌로부터 (라)『오독이졸』 弘田龍太郞作曲、久保田宵三作詞『개인날』 (나)귀여운애기 三、歌劇『마담、버터플라이』 (가) 푸치-니作曲 妹尾幸吉 三浦環譯詞 獨唱 三浦環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 朝鮮民謠 一、사발가 二、닐니리아 三、노래가락 四、唱夫打令 細笛 高載德 申海中月 奚琴 池龍九 伴奏 우사·다리오新交響樂團 指揮 니코라이·시펠브랏트

第一放送

◇午後六時 お話と唱歌 ◇同七時三〇分 講談 ◇同八時〇五分 都おどり ◇同九時 獨唱(三浦環)

十三日(月曜)

◇午後〇時五分 映畵이야기『따-엔젤』 李愚興

◇同三時一五分 食物講座(一)『食物의選擇』 金浩植

◇同六時 [illegible] 一、輕快한대장장이 二、산디에고왈스 三、아메리카騎兵 四、메리-위도-왈스 五、라팔로마·왈스 六、탕고·로-사- 伴奏 아르파하-모니카밴드 指揮 金文星 金生峰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朝鮮中央日報經濟部長 李相默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詩歌에나타난봄』 金台俊

◇同八時 雅樂 一、平調會象 二、軟打 三、與民樂 杖鼓 金一宇 大笒 金永根 洋琴 金相淳 玄琴 金雨塘

◇同八時三〇分 合唱 一、三部合唱『아름다운아…』 [illegible]-모作曲 二、그레고리齊唱『크리스트-스』 三、그레고리齊唱『예수마음』 四、그레고리齊唱『빈트떼』 五、三部合唱『만똥、에르고』 六、三部合唱『장루스……베-토-벤作曲 天主敎會神學豫科合唱隊 指揮 라가르드

◇同九時 伽倻琴併唱 一、短歌 二、唱劇調打令 楚漢歌 曹明洙 鼓手 丁元燮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講演 ◇午後二時五〇分(東)野球實況 ◇同六時(仙) 이야기 ◇同六時二六分(東) 基礎英語講座 ◇同七時三〇分(東) 生活改善講座(一) ◇同八時(東) 라듸오드라마 ◇同八時三〇分(大) 浪花節

十四日(火曜)

◇午後〇時五分 (東)絃樂器獨奏

◇同三時一五分 食物講座(二) 〃肉食과菜食〃 金浩植

◇同六時 童謠劇〃봄놀판의꿈〃 全二景─嚴達鎬作及指揮─ 配役 富禮……金鍾義 그의아버지……趙仁行 그의어머니……鄭信恩 魔王……張基成 참새一……鄭順永 〃 二……田桂玉 〃 [illegible] 꿈나라사람……金順龍 호수애會 效果 金鎭旭 伴奏 李龍相 〃 朴云聖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二) 金仁泳

◇同七時三〇分 講演 〃자멘호프博士의偉業〃 羅元和

◇同八時 流行歌 一、나리는이슬비…金駿泳作曲 二、紅淚怨…江口夜詩作曲 三、故鄕을차저가니…金駿泳詩作曲 四、아득한千里길…江口夜詩作曲 五、鴨綠江의뱃사공…金駿泳作曲 六、酒幕의하로밤…同 七、봄나는靑春…江口夜詩作曲 姜弘植

◇同八時卅分 伴奏 DK管絃團 一、풋고초外 二、사철가 三、삽부자타령 四、재담장님타령 五、재담노래가락 六、재담창부타령

◇同九時 連續野談(第一席) 까치집 申鼎言 朴錦珠 具載會

第一放送

◇午前十時卅分(東)家庭講座 ◇午後二時 講演 ◇同二時半(東)野球實況中繼 ◇同六時廿五分(京)靑年의時間 ◇同七時卅分(東)講演 ◇同八時 漫談와音頭 ◇同八時廿分(東)義太夫 ◇同八時五十分(京)映畫劇

曆 四月十三日(月) 三月陰壬辰小(廿二日) 乙丑·金·危·收 ●葵紀納財에宜함 ●淸明四月五日(陰十四日) ●穀雨四月二十日(陰二十九日)

頭痛에 노-신

★常習頭痛에苦悶하는中年初老人
★偏頭痛에 苦痛밧는 婦人들
★過度한執務勉學으로생기는事務家學生諸君의頭腦의疲勞恢復에
★理想의頭腦藥으로써너무도有名한日本의

노-신

頭痛의解消와腦의疲勞恢復에獨自의綜合的効果를發揮한

主効 頭痛、頭腦疲勞 頭重、心氣倦怠 二日醉、頭內朦朧

常用하면神經의榮養을良好케、心臟을强補함 胃腸에無害

價定 一個 .30 .50 1.00 2.00 5.00

全國藥店과데바-트에잇슴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〇八

現代劇의代表作品 ◎會社員閑下 松竹키네마社特作日曜報知所載的御家族映畵!! 監督 勝浦仙太郞

四月九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午前十時五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待望旣久!二大作登場◆

佛國토비스超特作映畫 名匠쉭크페-데監督作品 프란소와-스로세에 主演 미모사館 눈물以上의悲哀、웃음도업는人間의孤獨!메데가銀幕우에삭여노은空前의藝術!

◆佛國달·에·도락超特作映畫 佛國스키-界의第一人者 루이스트렌카主演原作 雪山의騎士 方山岳스키-映畫의最高傑作으로 今日本스포츠界人士의支持가크다

◆日活特作映畫 地雷火組 ─(火週封切)─ 外人部隊 시-고야、のそがれた花嫁、(么明行)나의행복、노라난公主、나는純眞해요、運河의微風 純白한處女地、卅九夜、東道、코푸햇、處女여嘆息마라、아리랑第三篇、모스코바의一夜、晩春、춤추는부로-드웨이

東洋劇場 西大門通 電光3二一番

四月十日부터五日間 正午十二時부터六時半까지續映 七時半始映 封切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新春勝願에百花燎亂한超豪華의大映畫 알구라社세미두社共同製作超豪華版全發聲日本版 監督 아레키쌍·구라노우스키 主演 에밀·야닝스

◎お洒落の王樣 (豪華스펀主) 瓚爽色의꿈을通하는奇異한國、常夏의平和로운나라에地下唯一의秘品二百六十五名의裸體侍女의豪華陣!!

◎玩具의나라 (玩具の國) 메트로·고-르드우인·메-야-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 가스·마인스·참스·로지아-스 主演 스탄·로-렐·오리바-·하-데이 부이쿠라!하-바-드不朽의오페렛타를映畫化한豪華音樂喜劇超特作篇으로大人이보면절머지는理想

●四月中娘娘座(樂劇團)公演 ●五月上旬裵龜子樂劇團來演

小品스켓취 處女나희열일곱살 一景 李雲芳作 主演…金元浩、李正順其他數名

딘센스 엉터리世界行進 四景 喜劇座文藝部案 主演(孫一平、金元浩、全景希)

喜劇빗쟁이退治法 二幕

正喜劇 벙어리냉가슴 一幕 喜劇座第三回 四月七日부터

團成社 四月八日ヨリ 四月十四日マデ 上映時間表 ニュース 春江の結婚 たつた一人の女 母の面影 帝國協會提供ニュース 蒲田トーキー

浪花館 洋畫專門 第一映畫トーキー ▲春江の結婚 ▲たつた一人の女 蒲田サウンド版 ▲母の面影 近日十五日より上映「ある夜の出來事」「眼太郞獅子」「二人靜」

飛行機탄坐地料에 집을팔어도不足해

百餘戶借地人地料不納對峙

舍人場發展에大暗影

【舍人】평안남도 순천군 사인씻는 신흥도시로 날로발전 하여가고 잇스므로 이에 악게를 꾸미여가지고 대지료를 이배내지 칠팔배로 올리여 청구한 지주가잇다 그는 평양부내에 거주하는 홍종관이란 사람으로서 몇해전에 사인장시내토지 차모의 소유 수마평을 사가지고 지료를 전보다 수배를 인상하야 납부할지를 하엿는데 즉 이전에는 사오원에 불과하든 대지료가 월약! 이삼십원 까지 되고보니 어떤 초가집 가튼것은 집울다팔아서 밧치어도 대지료에 밋치지못할형세이라 차라리 집이라라 어서허러옴겨야만 되겟다고 떠들고 잇다는바 결국 홍종관은 사인시모씨에게 맛기여 지료를 징수케하엿스나 아직까지도 벼여 차지인들은 강경히 버티고잇서서 지료불납으로써무리한인상에 항의하는중이라는데 대지료에 비해귀만 태원노코서 밧지를못하고잇는 지주의태도와 차지인들의 강경한반항이 어느정도까지 계속될는지 일반의주목을 끌고잇다고하는바 이가티 엄청난 지료인상으로인하야 사인장 발전에 일대암영을 던지고 잇는 홍지주의 폭거에 일반의 비난이 자못크다한다

解氷에道路潰決 荷車通行杜絶

【長津】겨울동안 싸이엿든 눈이 어름이 봄볕에 녹어 장진(長津)부근 도로에는 폭포수가 흘러나려 처처에 괴결이 심하야 평경 하물차 운반은 두절상태에 이르럿다는데 더욱 심한곳은 사수(泗水)갈산(葛山)간이라 하며 함흥(咸興) 장진(長津)간 사배리길을 일주야에 왕복하던 하물운반차들은 이로인하야 이, 삼일 혹은 오륙일이 걸니게되여 하주들에 밋치는 손해가 매일 수천원에 달한다한다

一等 明日을爲하야 朴鶴彦(二六○點)
二等 現代靑年의核心問題 朴宗燦(二一○點)
三等 勞動하자 洪一武(一六○點)
現代靑年의反省 林鍾英(一五五點)
農村의新生活 金昌鎭(一二○點)
農村平和를建設하자 洪曉日(九九點)

紹介業에도就職難

紹介組員이면徽章을必佩 이것업는居間은處罰한다

不正紹介業者에鐵槌

【開城】현재 개성에는 소개조합(紹介組合)에 정식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토지가옥 소개업자가 일백이십오명 인사소개업자가 이십오명에 불과한데 근년에 땅갑이 갑작이오름에따라 소위 사사자거간(私宅居間)이라는 무허가소개업자가 무려 삼천명이란 놀라운수자를 보히는바 신용상폐해가 적지 안흠을인정한 개성서에서는 조합에가입한 소개업자에게는 휘장(徽章)을 패용(佩用)케하야 만일 이것이업는거간은 부정소개업자로 인정하는동시 상당한처벌이 잇스리라는바 이러케되고보면 또 한삼천명의 사활문제가 심히우려되는형편이라한다

大浦漁組新築 近近移轉準備

【大浦】강원도 대포어업조합은 비약적 발전으로 속초항(束草港) 중앙요지에 부지약십여평의 현대식 대건물을 신축하고 근근 이전키로 목하 준비에 분망중인데 속초개항후 처음보는대건축으로서 면목을 일신하게되여 장래 만흔발전이 게대된다한다

덧하고 공립보통학교를 북면인산리(北面仁山里)중앙에 설치하기로되엿다는데 이로부터 문맹에 들리던 아동들의 장래가열리게 되리라한다

鎭興公普增築 近近着工豫定

【鎭興】수일전종하여 가는 화령아동수용이 문제되여 작금량년간에 궁하야 현안중이던 진흥공보교(鎭興公普校)교사증축문제로 말미암아 일반부형과 유력자제씨간에 현안되여 이래오던중 당국과 협력하여 증축비모집에 일반유력자측으로부터 헌금응모자가 연속되는 일방 당국에서도 영흥군당국으로부터 보조가 잇섯다는바 적당한시긔를 타서 근근교사에 착공하리라한다

불탄재덤이속에 疑問의男子屍

【牙山】재덤이속에서 의문의시체발견—충남아산군 온양면 온천리(溫泉里)길가에다가 동리사는 천모가 짚동을 벗긴 썩은재를 싸어두엇던바 지난봄 일에 어떤자의 소위인지 알수업스나 싸어두엇던 썩은재에불이나서 반소되엿섯는데 지난십일에 불탄재를 치우라고 한측 길이 오척오촌이나되는 사람의타죽은 시체가잇섯다는데 형용을 알수업스나 다리하나가 업는것으로보아서는 불구자가되걸인이 잠을자다가 타죽은듯하나 아직 자세히는 알수업다고한다

定州의多年宿案

㺚川江吐沙退水門

今年內設置키로決定通知

—萬餘關係民의雀躍—

【定州】십여년을두고 미해결중에 싸히여잇든 정주달천강(㺚川江)하류 토사퇴수문(吐沙退水門)팔개소 설치문제로 관계주민 만여명은 십여년동안에십여차의 진정한바잇섯는데 지난구일 평북토목과에서 금년내에 설치하여줄것을 정주군당국에 통첩하여왓음으로 군당국에서는 즉시 관계자대표 송원빈(宋元彬)씨외 십여명을 불러다가 그뜻을 전달하엿다는데 관계주민과 일반농민은 깁버함을 마지안는다고한다

長年懸案中이든 甕鐔基地決定

【甕津】조철해옹선연장에대하야 옹진연을 래봉산열로로 정하느니 최종현으로정하느니 혹은서 흥남엽동으로 되느니하야 그에대한 의론이 자못다각적으로 복잡화하야 일반의궁금증에 잇든바 메칠전에 조철회사의 서무과장과 황해도청으로부터 계관이출장하야 군회의실에서 읍내유지들과 협의한바가 잇섯다는데 오늘날까지 일반의 초점이 되야잇든 옹진연은 해주목에잇는 오천수리조합과 성업사출장소부근으로 결정되엿다는데 불원간 공사에 착수하야 오는십일월경에는 개통할 방침이라한다

串不出漫談會 永安支局後援

【永安】일광사진관(日光寫眞館)에서는 만담가로 호평이 놉흔 신불출(申不出)씨를 초청하야 본보 영안지국후원으로 오는십팔 구량일간 영안극장에서 만담대회를 개최하리라한다

水原의小作爭議 二日에十餘件

春耕期압두고注目處

【水原】계워가 몰려가고 땅이 풀림에 일반농가(農家)로서는 작농준비(作農準備)도 날로 늘어간다 지난 구、십량일간 수원에서만 발생한 사건수를 보면 십여건에 달하엿는데 그 전수가 거의 다 소작료(小作料)를 올려 소작할수업다는것이며 약간은 무조건으로 이작(移作)시키다는 쟁의(爭議)이다 그중 한건을 들어 말하면 수원군 태장면 권선리(水原郡台章面勸善里)에 사는 박옥로(朴乙壽)(假名)가 수원읍 산루리(水原邑山樓里) 김순옹(金順應)(假名)이라는사람의토지이천평을 사가지고 전긔김순옹이가 도조(賭租)한섬다엽바던것을 별안간 여섯섬으로 올님으로 전긔박옥로는 수차신지주에게 소작료인하를 간청하엿스나 종시듯지안는다고하야 전긔신지주는 군소작위원회(郡小作委員會)에까지 불너워 권고를바덧스나 해결이되지못함으로 할수업시 소작쟁의 소송(小作爭議訴訟)을 제기하얏다고한다

漁市場工事中 人夫一名墜落

【鐵山】평북철산군부서면소계도(平北鐵山郡扶西面小溪島)에잇는 철산어업조합(漁業組合)에서 어시장(漁市場)을 시설하고저 공사를 하든중 인부한사람이 오십여척되는 놉흔산에서 떨러저 십일오전십일시에 현장에서 비참히 직사하엿다는데 사망한 인부의 주소와 성명 조차도 알길이 업다고한다

開城支局後援의 男女雄辯大會

大盛況裡終幕

【開城】긔보=고려청년회 학예부(高麗靑年會學藝部)주최와 본보 개성지국 후원하에 개최된 남녀현상웅변대회(男女懸賞雄辯大會)는 십일일 오후팔시부터 동회관내에서 개최하얏는데 확인연사중 일등의 영관을 어든바 성규(朴學圭)군의 열변은 단연청중의 인긔를 파악하얏고 그다음 이등당선된 박영철씨도 능변이엿다는데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갓다
◇審判=高漢承 金錫炯 秦豪燮

麥嶺期압둔窮民 舒川郡에萬餘戶

◇……(全舒川郡民은不過二萬戶)

그들今後生途가漠然

【韓山】우리네의 살님사리가날로피폐하여감은 경향을물론하고 수자가 증명하는바이다 금번본군내의 산재한 춘궁민호수를조사한바에 의하면 전군호수 이만호중 일만사천여호라는 놀나운수가 아직 보리고개가 오긔도전에 일일일식도 못하고 굶주리는 대중들이라는바 금년은 작년의 대한발에 의하야 가일층 이들의 안남생활이 암담하다고한다

普校新設期成 ·校舍建築을獨擔

【長津】함남장진군(長津郡)읍대라면 문화사상에 매우 떠러진곳이라는것은 세상이아는바이며 더욱이 북면(北面)가튼 곳은대부분이 궁민이고 교통과 지세로 보아도 산골로 불편함에따라

線路우에置石 또列車脫線騷動

多幸이人命에는無事

【舍人】평원선철도에 때때로레ー루우에다 「돌맹이」를 올려놋는일이 잇음으로 만흔곤난을박고 잇다는바 지난십일에도 또 이러한일이발생되어 렬차의 탈선까지 시기여 대소동을 일으킨 일이잇다 십일오전팔시에 사인장역발(舍人場驛發) 개고행(价古行)렬차가 봉학역(鳳鶴驛)을지나 자산중림벌을 통과(通過)할지음에 문득 동렬차중에서 팔백일호(八○一號)의 화물차가 탈선으로 말미아마 일대소동을 이르키엇다 즉시 순천과 사인장 보선구(保線區)원이급행하여 복구에 진력하여 약두시간후에야 겨우 운행하게되엿는바 승객은 다행이아모 이상도업다고 한다 이가튼 악희배를 단단이 처벌하고저 당지경찰은 범인을엄탐하는중이라한다

義城教育界에快報

農業補習校設置內定

正式手續提出準備中

【義城】경북의성군(慶北義城郡)은 십오만여구가사는 비교적광대한군이나 군내각면마다 일개소의보교(普校)가 잇는이외에는 중등정도의교육시설이라고는 존재업서서 매년군내각보교졸업생천여명중 겨우륙십여명만이 각지중학교로 입학하고 그남어지대다수가 모다 그대로 놀게되여 지방민들은 이를 항상우려하야 그대책을강구하고잇든중 작년에 마침 경북도에서 도내적당한곳에 농업보습학교(農業補習學校)를 삼개소를 신설하게된 그당시 군내무주임(現善山郡守)이든 리학귀(李學貴)씨의주력으로 양도회의원기타 지방유력자의활력으로 그중 일개소를 의성에 설치하야주기를 도당국에 여러번 간청하엿든바 이것이다행이 가능성이 잇게되여 위선그학교를 설치할 적당한 위치를 군내수부 의성읍(義城邑)부근에 삼개소의 후보지를 정하고 그중제일적지 룡골은중금번마침 순시온 강긔지사(岡崎知事)의 최후선택을바더 그중제이후보지로잇든 의성면 동동 제이구(義城面道東洞第二區)(虎尾洞)로 내정되야 이제는정식출원를 하랴고 군학무계와기타관계유력자는 그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이정식출원의 결과공인이가나면 즉시 교사신축에 착수할 예정인바 이것이 꼭됩담으로 그경비는 물론국고보조예산으로 될것이나 신설인만큼 그부족되는 것은 지방민의 부담으로 현금만여원 교사 부지 이천평과기타 림야(林野)삼천평 정보와 또한 실습지(實習地)로 전답(田畓)간평정보를 제공하게 되여 그도대부분결정된모양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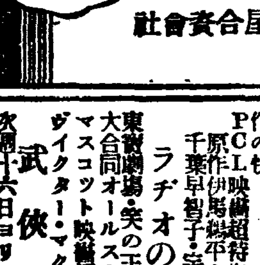
地方人事

▲松崎弘氏(前仁川財務課長) 七日 京畿道屬榮轉人事次 本報仁川支局來訪
▲下田博夫氏(前仁川視學) 龍山公普校長으로榮轉人事次 同上
▲尹元赫氏 (前朝鮮麯子株式會社仁川支店長) 本店庶務課長으로榮轉人事次 同上
▲河合純一氏(仁川視學) 新任人事次 同上
▲小武愛人氏(博文習校敎務主任) 新任人事次 同上
▲安聖護氏(萬城州郡守)今般退官人事次本報牧山支局來訪
▲飯山敢榮氏 (春日川公立普通學校長) 新任人事次 同 上
▲李永爲氏 (雲浦公普)轉任人事次本報洪原支局來訪
▲金顯允氏 (咸興女子普)轉任人事次同上
▲金東集氏 (龍雲公普校訓導)新任人事次同上
▲洪台洙氏 (洪原公普訓導)新任人事次同上

天下一品! 一家一瓶!
率能은 항상 라이트와 함께平行한다!
大瓶小瓶各種 全國文具店에 잇슴……
チャムピオンインキ本舗 篠崎インキ製造株式會社
2オンス入(スポイト付) 正價30セン

好職
資本一圓으로日收五圓確實事業有 一錢切手添付申込次第說明書進呈
大阪市東淀川本庄川崎五ノ一 發明研究會

結核豫防에 衛生ほがらか齒磨 (위생호가라카치마)
呼吸器와齒牙가弱한분은短命
春情에 淋疾……淋疾에……ネオヂリン (네오지린)
各有名藥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母性愛의
育兒求眞을滿足식히는 救急治病保健의 이一大名藥
이야말노世界에빗나는起死回生의
金剛靈方 不動奏効
主効
경풍、보채고
신열、기절、경
전간、젓투、정、야
음、창、마마
청변、하
위장쇠약독
기타쇠약소아
藥價 二十錢부터十圓까지 德用一包 一圓

本家 大阪天滿橋 樋屋合資會社
11—K—1

四月十一日ヨリ十五日迄特別封切 晝夜三回繰返映寫正午始映 入場料各等大人五十錢學生三十錢均一
今週の番組
ユナイト廿世紀映畫超大作日本版
アレキサンダー・コルダ… 監督
ダグラス・フエアバンクス 主演
ドン・フアン
マール・オベロン・ベニタ・ヒューム助演……ダグラス三年振の超豪華版・ドンQを遙かに凌ぐ陽春作の快
PCL映畫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原作伊馬鵜平・監督矢倉茂雄
千葉早智子・宇留木浩主演
ラヂオの女王
東寶劇場・笑の王國・吉本興行部大合同オールスタッフ
マスコット映畫超特作日本版
ヴイクター・マクラグレン主演
武俠一代
次週十六日ヨリパラマウント永遠に愛せよ・ユナイト戰ふ巨象
淺草映画劇場

品質本位
花王石鹼 (화왕비누)

何故로? 最高의品質인가
四十九年의經驗을가진花王石鹼에는이러한特長이잇습니다
●純粹합니다
優良한原料만精選配合하야 嚴密한化學管理下에 製造하는故로 그純粹度는 世界最高의九九、四%를보이고잇습니다 이것은花王石鹼이如何히柔軟한살결에도刺戟이업시穩和하게皮膚를미끄럽고아름답게하는石鹼인것을化學的으로證明하는것입니다
●溶崩치안습니다
花王石鹼은獨特한製法에依하야製造되는故로適當히溶解되여中途에녹아부스러지는일이업기때문에最後의一片까지完全히쓸수가잇습니다 이것은花王石鹼의型이적음에도不拘하고펵더큰石鹼보다經濟的인것을나타냅니다

眞摯히石鹼을求하시는분은반듯이 印이잇는花王石鹼을指名하십니다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